

생태계 위기와 그 문학적 대응

— 신동엽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석 영*

〈차 례〉

1. 생태문학을 위한 시도
2. 신동엽의 시세계 —대지에 뿌리박은 생명에의 동경
3. 진정한 삶을 위한 유토피아적 구상

1. 생태문학을 위한 시도¹⁾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²⁾ 라는 말로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 첫 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고대 그리이스 문화의 구조에 대한 비유로서 이런 표현을 하였지만, 이 말의 본의보다는 정서적 차원으로 가슴에 와닿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밤하늘에 별이 더이상 빛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도를 읽을

* 영남대학교 강사

1) 전지구적인 환경위기를 무역과 연계하는 그린라운드라는 괴물이 출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2년 3천 8백억달러 규모이던 환경시장이 오는 2천년에는 5천 9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외 환경기술협력강화를 펴고 있다. 발빠른 선진국의 녹색외교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의 그린라운드 대책반은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관련법규를 구해 번역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환경협약 워크숍을 갖는 등 활력을 띠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움직임 이전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닥친 환경위기는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는 취지에서 쓰여졌다.

2)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譯 (심철당, 1985), p.29.

수 없는 시대는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노래하는 20세기 말의 시인은 없는가?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 그녀와 인간 사이의 적대관계는 너무나 심화되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을 핑계삼아 펼치는 통상압력인 ‘그린 라운드’가 오고 있다. 아니 그린 라운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는 근대적 삶의 양식에 있다. 지칠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자연에서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 착취하려 한다. 소비는 미적이고 풍요는 가장 우선되는 덕목으로 자연을 단지 착취하는 대상으로서만 파악하려 들었다.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대지는 단지 문학적 상징으로서만 인식되어 왔었다. 인간에게 착취당 당하는 자연은 인간에 대해 더이상 호의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모순은 역사의 특정 시기에 특정의 생산/소비 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모순이며, “극복 가능한 모순”임이 전제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모순이다.³⁾

그러므로 현재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개선의 방법이 문명거부론이나 과거회귀론이 될 수는 없다. 일척간두에 서있는 생태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연과 문명, 자연과 인간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돌도끼를 던지며 사냥을 하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도, 좋았던 지난 시절을 그리워할 수만 없는 것이다.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문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문명의 성격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문학도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에 참여해야만 한다.

인식의 대전환이란 인간의 모든 의식과 활동에 있어서 또 학문적 작업과 예술적 작업을 할 때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합일을 우선적으로 하

3)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녹색평론 통권 제 10호), p.18.

는 것을 말한다. 즉 생태학적⁴⁾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환경 파괴의 원인이나 실태를 다루고 있지 않는 문학작품이라도 환경 파괴를 필연적으로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생태학적 상상력을 갖고 쓰여진 작품은 모두 ‘생태문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라만상이 창조적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며 이룩하는 우주만물공동체에 의 꿈으로 인간을 이렇게 은밀히 그러나 불가피하게 부르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적 운명과도 같은 것이요 만물의 꽃인 인간이 창조주에게서 받은 신비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은총의 선물이 다름 아닌 녹색 상상력이요, 생태학적 상상력이고 이것은 모든 참다운 과학의 바탕으로 작용하여 또한 우리가 시에서 늘 만나는 원초적 충동이기도 하다.⁵⁾

언 땅을 뚫고 돌아나는 새싹을 보고 생명에 대한 무한한 경이심을 가지며 오묘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인간도 미물도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겸허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곧 조물주가 우리에게 부여한 진정한 상상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상상력에 의해 쓰여진 작품은 우리 문학속에서 한 맥을 이루고 있다.

山雨는 잠만 깨고 太陽이 떠오는데

물근 바람 더더오니 鏡面이 더욱발다

검은 돌이 다보이니 괴기數를 알리로다

괴기도 나치이거 놀널줄 모르거든 차마 엇디 낙굴넌고

— 박인로 「노계가」 부분 —

새끼오리도 헌신작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4) 일반적으로 ‘생태학적’이라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파악하여 생태계의 전체 법칙과 질서를 우선으로 하는 사고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5) 김영우, 「생태학적 상상력」(녹색평론 통권 제 9호), p.24.

짚검풀도 가락잎도 머리카락도 헌겔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젓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門長늬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툰도 나
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뽕장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
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
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백석 「모닥불」 전문 —

위의 작품은 노계가 1636년에 지은 장편가사 「노계가」의 일부이다. 박
인로의 은둔지였던 노계의 경치와 거기에 몰입한 시인을 감정을 노래한
것으로 강산풍월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자연사상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물아일체(物我一體),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므로 서구 근대문명 이후 인
간의 착취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자연관
을 엿볼 수 있다. 비가 내리다 개이고 햇빛이 방금 내린 비로 깨끗하게
씻긴 온누리를 비출 때 집 앞 개울가에 나가서 거울같이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는 시인을 상상해 보자. 맑은 바람은 코 끝을 스치고 지나가고 시
냇물은 그 속의 고기의 수를 헤아릴 수 있을만큼 맑다. 물 속의 고기도
시인도 낮이 익어 놀라지 않고, 자신을 친근하게 여기는 고기를 차마 낚
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우주만물공동체가 서로 은밀히 부르고 화답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생태학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다.

아래의 작품은 30년대의 대표적 시인 백석(白石 1912 - ?)의 작품
이다. 백석의 시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깊은 애착에서 시
작 되는 것이 많다. 이러한 태도는 시인 자신이 모든 동족적 사물들과의
융합을 꿈꾸는 합일의례(合一儀禮)적 성격을 나타낸다.⁶⁾ 모닥불은 모든

사물들이 모이는 중심이자 공평하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근원지이다. 대지가 모든 사물들에게 그녀의 젖과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다시 받아 들이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1연에서는 새끼오리, 현신작, 소똥, 갓신창(부서진 갓에서 나온, 말총으로 된 길긴 끈의 한 종류. 갓진창), 개의 이빨, 널판지쪽, 짚검풀, 가락잎, 머리카락, 형짚조각, 막대꼬지, 기와장, 닭깃, 개털 등 일상생활의 산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 태우는 모닥불의 수렴성(收斂性)을 노래하고 있다.

2연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령의 상하 신분의 귀천에 차별없이 사람과 동물의 구별도 없이 모두에게 온기를 나누어주는 모닥불의 공정한 발산성(發散性)을 노래하고 있다. 모닥불이 모든 사물에게 공평하게 온기를 나누어주고 모아들이는 힘의 근원은 ‘어미 아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 (몸뚱이만 남은 물건)가 된 슬픈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주의 질서 즉 생성과 소멸 앞에서는 인간도 동물도 무생물도 속수무책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슬픈역사’를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서로 연민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인간과 자연은 결코 적대관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지구 생태계의 미래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추구하는 문학적 사색과 모색이 나타나는 작품을 추구하고 애써 그 가치를 찾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신동엽의 시세계 — 대지에 뿌리박은 생명에의 동경

70·80년대 시인들은 그들이 사회와 현실을 대하는 세계관이 무엇이

6) 이동운, 「민족시인 白石의 주체적 시경신」, 『백석 시전집』 (창작사, 1987), p.166.

든지간에 시적 주체가 정치와 사회와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가 열리면서 문학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확인되고 그로 인해 현실의 변화 발전이 궁극적으로 귀착될 지점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동안 문학이 유지해 오던 현실대응 방식으로서의 긴장이 빠른 속도로 이완되어 아주 미세한 일상으로 시적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후 25년 동안 민족시인, 민중문학의 선구자로서 김수영과 더불어 많은 추앙을 받아 오던 신동엽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럽고 엉뚱한 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인 신동엽의 이미지는 ‘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고고한 투사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을 좀 더 꼼꼼하게 읽다보면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반생명적 요소를 거부하고 대지에 뿌리박고 있는 건강한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찾아볼 수 있다.

아스란 말일세, 흰 젓가슴의 물결치는 거리, 소시랑 씨근대고
다니면, 불쌍한 機械야 景致가 되겠는가 말일세

간밤 평화한 나의 조국에 기어들어와 사보뎡 심겨놓고 간 자
나의 어깨 위에서 사보뎡 뿔아가란 말일세

—「機械야」부분—

아니오

사랑한 적 없어요

세계의

지붕 혼자 바람 마시며

차마, 옷 입은 도시계집 사랑했을 리야

—「아니오」부분—

신동엽 시의 출발은 서구적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에서이다. 그는 서구 문명의 본질을 약탈과 살육으로 규정하고, 현대문명의 이러한 특성은 반생명적 성질으로 이어짐을 간파하고 있다. 인간생활의 원래 모습은 대지의 위대한 포용력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곳이다. 「껍데기는 가라」에서 ‘모든 쇠붙이’에 대조되는 것으로 ‘향그러운 흙가슴’을 설정하였듯이 이 작품에서는 서구 물질문명이 휘젓고 가기 전의 건강하고 생명있는 문화를 ‘젓가슴이 물결치는 거리’로 표현하고 있다. 원래의 건강하고 생명있는 문화를 잠식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띄는 서구문명을 ‘사보땡’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서구문화의 성격과 상호관계 있음을 시인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파멸적인 근대문명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다. ‘도시계집’으로 표상되는 현대문명의 속성을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노래함으로써 현대문명의 속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

신동엽 시정신의 본질은 전경인(全耕人)정신이다. 그는 인류문화의 오늘이 있게한 것은 오직 분업문화의 성과로 보고 있다. 신동엽은 인간의 총체적 인식을 저해하는 분업문화에 대해서 강한 혐오감을 표시하면서, 분업문화로 이루어진 선단적 기능은 그 분자가 확대되면 될수록 한정된 어머니 즉 대지로부터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공중기구는 기근을 모면할 수 없어서 영양실조에 빠지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생존경쟁의 광기성에 휘말려 맹목적인 상쇄(相殺)로써 불경기를 타개하려고 발악하고 발광하고 좌충우돌 하기에 이를 것⁷⁾으로 전망하고 있다. 30년도 전(1961년 발표)에 현대문명의 속성과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는 이 글에서 우리는 그의 예언자적 풍모를 엿볼 수 있다.

신동엽은 이 글에서 그의 독특한 화법으로 생명의 대지를 ‘원수성(原數

7) 신동엽, 「시인 정신론」, 『신동엽 전집』 (창작과 비평사, 1993), p.367.

性) 세계'로 현대문명으로 분해된 맹목적 기능자 사회를 '차수성(次數性) 세계'로 전경인적 인간회복을 거쳐 대지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가치관을 '귀수성(歸數性) 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원수성의 세계에서 인류는 어머니 유방에 매어달린 갓난 아기와 같이 그들과 대지와 의 음양적 밀착관계 외에 어느 것도 용납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들은 '대지에 소속된 생명일 것을 그만두고 인위적 건축 위에 作巢되어진' 차수성적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동엽은 차수성적 세계가 계속될 수 없는 근거로 모든 생명의 물질적 능력에는 동물로서의 한계가 숙명지워져 있기에 서구적인 무서운 노력으로 아무리 하늘 끝에 이르기 위해 벽돌을 쌓아올려 본다 하더라도 하늘 끝은 결코 나타나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두고 있다. 즉 그는 현대사회의 위기는 물질적 진보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왔다고 보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절 없이는 현대 문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엽이 「시인정신론」을 쓸 당시인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은 추진한지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1960년대 초 900만명이었던 도시인구는 90년대 들어서 3천 500만명으로 늘어났고 도시화율 역시 36퍼센트에서 80퍼센터로 높아졌다. 자동차 수는 3만대에서 500만대로 약 170배 가량 늘어났다. 아파트 주위에 식재된 낙엽송과 키를 겨루던 5층짜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없이는 꿈작할 수 없는 아파트로 고층화 되었고, 주방에 놓인 인스턴트 식품과 다용도실선반에 놓인 세계의 종류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을 것이다.⁸⁾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더 넓어지고 높아졌으며 또 더 자유로와졌는가? 최대의 물질적 번영(모든 인류에게 고루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이 극단적인 사회봉괴를 만들어내고, 최고의 기술 및 과학적 성취가 지구상의 생명의

8) 구자건, 「환경위기의 윤리적 진단」 (녹색평론 통권 제 8호), p.163.

유지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신동엽은 지금 우리 생존의 절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경제적 근대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사실 全耕人의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全耕人의으로 체계를 인식하려는 전경인이란 우리 세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들은 백만인을 주워 모아야 한 사람의 전경인적으로 세계를 표현하며 전경인적인 실천생활을 대지와 태양 아래서 버텨 영위하는 전경인, 밭갈고 길쌈하고 아들 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량의 발언, 세계의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 온전한 대지에의 향수적 귀의, 이러한 실천생활의 통일을 조화적으로 이루었던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경인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歸數性 世界 속의 인간, 아울러 原數性 世界 속의 체함과 겹쳐지는 인간이었으리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문명이 인간을 지배하고 구속하는 소외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의 해결책은 영원한 전체성으로서의 대지와 결함으로써만 인간성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원수성 세계에서 인간들은 조심스럽고 외경스러운 태도로 자연의 세계에 다가간다. 원수성 세계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입장은 약탈적인 것이 아니라 친근한 유대의 관계이다. 차수성 세계에서 조사되고 설명되고 궁극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자연세계를 원수성 세계에서 자연세계로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인간이 귀수성 세계의 인간인 것이다.

그의 시는 이런 문명관을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극도로 분업화된 차수성 세계를 비판하고 대지에 뿌리내린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원수성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조용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은,

다만 사랑하는
생각하는, 그 눈은
그 밤의 주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 「빛나는 눈동자」 부분 —

이 작품에서 시인은 현대문명과 현실을 비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고 연민의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보는 시인의 정신의 눈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생태학적 상상력과 더불어 신동엽 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상과 이웃에 대한 연민이다.

憐憫,

누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막막한 수렁 속에 돌아난 버려지
버려지의 기다림이
불쌍하게만 여겨짐이여,

(중 략)

미워할 사람도
예뻐할 사람도 없었는가
다만
살아 있음한 목숨의
불쌍할 뿐

(중 략)

서러운 사람들이
서러운 목 뽑고
서러운 코 흘리며

서러움게, 살아가고 있었다,
 살아있음의
 불쌍함이며,
 숨쉬고 있음의
 불쌍함이며, 살아 있음의 불쌍함이며

— 「錦江」18장 부분 —

서사시 「금강」은 오랜 세월동안 생명력을 억압당하고 노예로서 살아왔던 농민들이 그들이 진실한 삶을 찾으려는 노력으로서의 동학혁명을 형상화한 것이다. 동학혁명을 계급 투쟁적이고 봉기적인 성격으로 단순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의 밑바탕에 인간생명에 대한 본능적 열망, 진정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염원을 깔고 있다. ‘시란 생명의 발현이며 우리 인식의 전부이며, 세계 인식의 통일적 표현이며 생명의 침투며 생명의 파괴며 생명의 조직’이라는 그의 시관(詩觀)이 반영된 결과이다.

서사시 「금강」에는 서사적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서정적 구조가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멜로드라마적 플롯트나 사랑과 연민의 내밀한 경험은 작자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 가운데 불협화음이 된다. 이 시는 역사적 사고가 얇고 단순하며, 복잡성을 갖지 못한다’⁹⁾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서사시의 전체적 구조에서는 이러한 서정적 요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금강」의 사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연민은 중생일체에 대한 자비이다. 주인공 申하늬가 부정(不貞)한 그의 첫 아내와 그 남자까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도, 신음하는 민중을 구하려는 것도 연민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신의 의도나 의지의 힘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의 진정성(authenticity)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내부에 있는 어둠과, 비합리적이며, 무의식적인 자아의 요구와 합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낸다.

9) 김우창, 「申東曄의 錦江에 대하여」(창작과 비평 통권 제 9호), p.112-116.

진정성은 결국 우리 각자의 전인적인 인격, 또는 총체적 인간성에 대한 호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의 작품의 기저가 되고 있는 연민은 문학의 진정성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시인의 모든 살아있음에 대한 연민은 분노를 파괴와 살육으로 끝맺지 않게 하고 진정한 것의 창조로 이어지게 한다.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출렁이는 네 가슴만 남겨놓고, 갈아엎었으면
이 균스러운 부패와 享樂의 不夜城 갈아엎었으면
갈아엎은 漢江沿岸에다
보리를 뿌리면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

— 4월은 갈아엎는 달 —

신동엽에게 있어서 4월이란 꺾데기는 보내고 알맹이만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달이다. 그에게 4월이 이렇게 강렬하게 와닿는 것은 물론 당대 시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4.19혁명의 영향일 것이다. 그는 4.19혁명을 단지 정치적 불의에 항거한 혁명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다. 땅을 갈아 엎어서 새로운 문명의 씨를 뿌려 ‘비단처럼 물결칠 보리밭’ 즉 대지에의 귀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3. 진정한 삶을 위한 유토피아적 구상

신동엽의 시는 우리가 사회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의 상상력을 출발시키고 있다. ‘웃 입

10) 김종철, 「인간, 휴, 상상력」(녹색평론 통권 제 3호), p.110.

은 도시계집'으로 표상되는 서구문명을 거부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의 건설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동엽의 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도 光化門앞 마당
高等食을 배 불린 海外族의
마이크 演說.

蒙古에의 女貢도, 清朝의 大拜도
空港으로 集結된
새 시대의 封建領主.

여보세요 阿斯女. 당신이나 나나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가차운데 가리워져 있었어요.

말해 볼까요. 건어치우는 거야요. 우리들의 포등 흰 알살을 덮은 두드러기며 딱지며 면사포며 낙지발들을 面刀질해 버리는 거야요. 땅을 갈라놓고 색칠하고 있는 건 전혀 그 吸盤族들뿐인 탓이예요. 面刀질해 버리는 거야요. 하고 濟州에서 豆滿까지 땅과 百姓의 웃음으로 채워버리면 되요.

누가 말리겠어요. 젊은 阿斯達의 아름다운 피꽃으로 채워버리는대요.

— 「주린 땅의 指導原理」부분—

외세는 정복자의 특권으로 우리 국토를 약탈하고 유린하여 대지에 기대어 살고 있는 우리 민초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이들이 우리에게 끼친 이러한 상처보다 문화적 제국주의자로서 우리에게 끼친 상처는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정체성마저 박탈해 버린 것이다.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의 근원을 간과하고 있기에 시인은 분노의 화살을 단지 민

중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만 겨냥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기대고 있는 외세, 약탈과 살육을 일삼는 서구문명의 특성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지에 뿌리 내리고 저마다의 문화를 이루며 전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대지로부터 뿌리 뽑혀 부유하거나 ‘흑반족’과의 결탁으로 변종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원수성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 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 ----- 새로운 문화 -----가 필요한 것이다.

해두 안되거든 어머니, 생각이 있어요.

힘은 좀 들겠지만 地上에 있는 모든 숫들의 씨

죄다 섞어 받아 보겠어요. 그 반편들 곁.

욕하지 마세요. 받아 넣고 정성껏 조리해 보겠어요.

문제 없어요, 튼튼하니까!

—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大地」부분 —

시인은 분업화 되고 바인간적인 현대문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부 의 몸짓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지의 포용력은 굳게 믿고 있다. 차수성의 세계에서 ‘반편’이 되어버린 여러 생명들을 되받아서 원수성 세계에서 온전한 생명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자 한다. 온전한 생명의 세계의 구현은 현재의 기술문명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늘과 땅,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문제를 보는데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동엽은 이처럼 현대 문명의 세계를 고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현대 사회의 전체적 구조적 모순이 응집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지의 자궁에서 도덕적이고 비폭력적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 때라야 오늘날 문명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부도덕, 파멸’(「시인 정신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원수성 세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현실세계에서의 유토피아를 설정하고 있다.

눈동자를 보아라 쟁아 희옴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
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故鄕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쟁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넝랑 그만 내자

들菊花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未開地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내 뺨물 구
비치는 싱싱한 마음 밭으로 돌아가자.

— 「쟁아」부분

「향아」에 재현된 원수성의 세계는 공동체적 노동과 유희가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장소가 우리들의 원래 고향이고 현대문명에 비인간화되고 분업화되기 전의 ‘병들지 않은 젊음’의 상태이다. 맹목적인 기능자 사회인 차수성의 세계는 중국에 가서는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근대 경제의 획득 경제적 성질을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의 이 비판은 플라톤이나 중세의 계급 협동의 이념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었다. 지나간 이상에 비추어, 또는 과거에로 되돌아 가서 현실을 비판한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단순히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진 과거가 하나의 사실을 말하든 또는 하나의 생각을 가리키든 간에, 과거로 되돌아감으로써 미래에 대한 혁명적인 계시를 주었던 것이 근대 혁명사상의 대부분의 양상이었다.¹¹⁾

11) 노재봉, 「유토피아 해체」, 『세계사상전집』 v.28 (삼성출판사, 1976), p.13-14.

그러므로 신동엽의 시에 나타난 과거는 현실을 도피하는 장소도, 과거를 미화함으로써 현실도피가 가능한 장소도 아니다. 단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분업화되고 물신화되지 않은 원수성의 세계로 채택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동엽의 작품이 의미있게 읽히는 것은 기본 성격상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은 인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현재와는 전적으로 다른 문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신동엽 시의 진정한 가치이기도 하다.